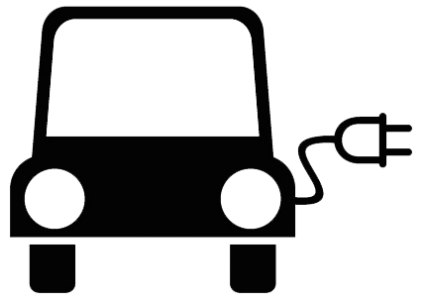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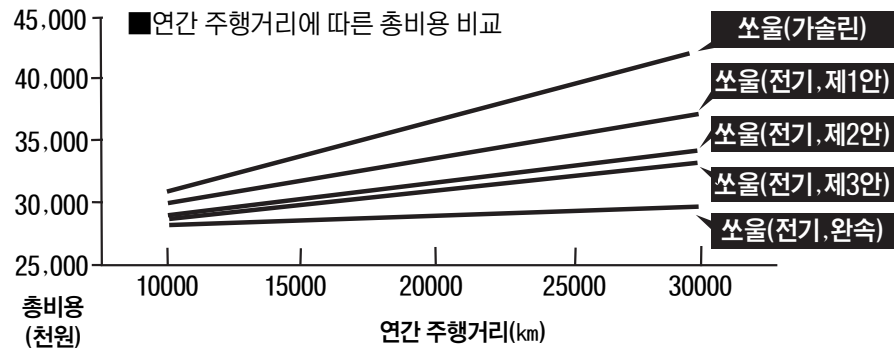


환경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유료화



1kWh당 279.7~431.4원...가솔린의 40~62% 선 호남 31기 등 전국 337기...2017년까지 637기로 확충



환경부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내년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체 산정한 요금안 3가지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요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호남권 31기를 포함 전국에 337기가 있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637기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요금안은 유류비 대비 40~62% 선에서 책정했다. 킬로와트시(kW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당 요금과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를 비교했다.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월 요금을 보면 제1안은 연간 1만 3378원, 제2안은 5만 9000원, 제3안은 8만 2000원이다. 이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와 비교해 각각 40%, 45%, 62% 수준이다. 최초 구입 및 유지에 드는 비용도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운행시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약 126만(3안)~290만원(1안) 적게 든다. 동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면, 총비용(1안 기준)은 전기차 2957만1000원, 내연기관차 3246만 3000원이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더욱 낮아진다.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약 515만(3안)~894만원(1안) 저렴하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요금을 확정한다. 올해 말부터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공급속 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로 수익이 발생하면 충전시설 신형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 충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는 외부 전력공급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스탠드와 이와 연결된 케이블 및 직류 또는 교류 접속의 전기자동차 커넥터를 가진 일체의 충전시스템으로, 단시간(30분 이내)에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으로 무상 운영중인 공공급속 충전시설은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사용요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으로 본 남도의 국립공원 항흥경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제14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에 출품된 4598점 중 8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공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무등산 서석대의 겨울, (무안 봉수산에서 바라본) 다도해의 석양, 가을 피아골, 월출산 산너를. <환경부 제공>



아름다운 야생화 군락 여기있어요

산림청, 강진 주작산 등 야생화 100대 명소 선정



개불알풀(여수 거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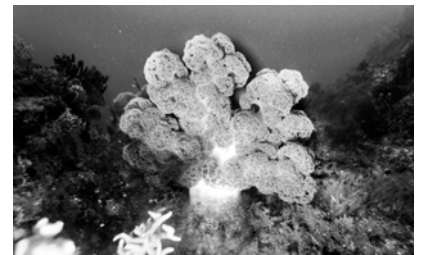
정향풀(완도 수목원)

산림청은 최근 강원 인제군 곱배령, 정선군 함백산 만항재 등 우리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전국의 야생화 100대 명소를 선정했다. 전남지역 야생화 명소로는 강진 주작산(진달래, 산철쭉), 고흥 마복산(금낭화, 각시붓꽃)·팔영산(남산제비꽃, 진달래), 구례 지리산 노고단(동이나물, 지리터리풀, 각시원추리), 보성 일립산·조암산(산철쭉), 순천 조계산(하어리, 참꽃마리, 꽃무릇), 여수 거문도(원동백, 분홍동백, 개불알풀), 영광 불갑사(봄·가을꽃무릇, 상사화), 영암 월출산(산닥나무, 끈끈이주걱, 수정란풀), 완도 수목원(섬백리향, 정향풀), 진도 점도 남방산(제비꽃류, 자란, 전남성) 등 12곳이 포함됐다. 이번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생화 명소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광릉요강꽃·솔채꽃 등), 강원도 태백 함백산 만항재(별개미취·

투구꽃), 강원도 인제 점봉산 곱배령(산꼬리풀·마타리 등), 경북 상주 황금산(물매화·잔대·구절초 등), 경남 합천 황매산(자주손풀·속방망이·역새 등) 등이다. 야생화 100대 명소는 언론,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분야의 야생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했다. 야생화 개화시기와 식물 분포, 탐방객 선호도, 접근성 등을 고려했으며, 희귀식물 등이 분포하고 있어 탐방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했다. 산림청은 야생화 100대 명소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꽃길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목원·식물원 등에서 계절별 야생화 특별 전시회와 사진전을 열도록 해 야생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 위기 연산호 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던 큰수지만드라마리(사진) 등 연산호 3종을 9월부터 두 달간 성공적으로 복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복원한 연산호는 큰수지만드라마리 100군체(4000개체)를 비롯해 집해면드라마리와 빨강해면드라마리 총 150군체(6000개체) 등이다. 연산호는 부드러운 표면과 유연한 줄기를 가진 산호로서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바다의 꽃’으로 불린다. /김형호기자 khh@

영산강환경청 31일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1일 ‘2015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환경청을 출발해 광주과학기술원을 거쳐 다시 환경청으로 돌아오는 20km의 코스로 운영되며, 연료 소모율과 운전습관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상 광주·전남·제주, 남해·하동의 운전면허가 있는 거주자로 가족, 친구, 동료 등 2인 1팀 구성된 30개 팀이 출전한다. 사전 특별행사로 이중범 야구 해설위원과 전문 카레이싱 선수, 모범택

시 운전자가 펼치는 친환경운전 경기도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대회 당일 환경청을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차량 점검 서비스, 캐리커처 그리기, 친환경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친환경차량 전시 및 시승 등의 행사도 준비됐다. 시상은 총 11개 팀에 환경부장관상, 영산강유역환경청장상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가팀 전원에게는 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티셔츠,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김형호기자 khh@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 담 문 의

010-3605-5000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18억이상 재대출 가능)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01호, 건 120평, 사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뷔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포함) (1년후 5억이상 재대출 가능)

경매투자

▶투자 하실 분! 단독/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